

미국, 오미크론 확산...코로나 확진 하루 25만명

2주 만에 일평균감염 2배로 입원·사망은 크게 늘진 않아 “오미크론, 58.6%로 우세종”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CNN 방송은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이날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고치인 25만 449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종전의 최고치인 25만1989명(올해 1월 11일)을 뛰어넘는 것이다.
CNN은 이 수치가 아직 진행 중인 집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 수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이 오미크론의 '진격'에 사상 최대 신규 확진자를 낸 가운데 미국도 이런 흐름에 가세한 것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7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4만 30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과 견줘 갑절 이상(105%)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신문

은 전했다. 다만 입원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세는 확진자만큼 가파르지 않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6% 늘어난 7만1381명이었고,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보다 외려 5% 줄며 1205명으로 그친 것으로 이 신문은 집계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일부 주(州)는 입원 환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시간·버몬트·메인·뉴햄프셔 등 4개 주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최근엔 입원 환자가 줄기 시작했다.
또 수도인 워싱턴DC와 오키오·인디애나·델

라웨어에선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겨울의 80% 이상으로 환자가 늘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을 이끄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25일 기준 1주일간의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비중을 58.6%로 추정했다.
델타 바이러스는 41.1%에 그쳐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됐다. CDC는 앞서 지난주 공개한 자료에서 18일 기준 오미크론의 비중을 73.2%로 추정할 바 있는데 이 수치는 22.5%로 크게 낮춰 수정했다. /연합뉴스

“메타행 유출 막아라” 애플, 핵심인력에 2억원 주식보너스

애플이 이례적으로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최대 18만달러(약 2억1367만원) 상당의 주식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옛 페이스북) 등 경쟁 업체에 우수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지난주 실리콘 설계와 하드웨어, 일부 소프트웨어와 운영그룹에 속한 엔지니어들에게 특별보너스 지급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너스는 4년에 걸쳐 지급되며 최저 5만달러(약 5935만원)에서 최대 18만달러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해당 부문 엔지니어 10~20%가 보너스 지급 대상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보너스가 성과에 따른 보상 형식으로 매니저들이 선별한 엔지니어들에게 지급됐다고 애플은 밝혔지만, 지급대상에서 빠진 엔지니어들은 선정이 임의로 이뤄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기본임금, 주식과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금액이 큰 경우는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최근 수개월 사이에 100여명의 엔지니어를 메타 플랫폼에 빼앗겼다면 이번 보너스 지급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이례적인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카불서 여성 시위 탈레반 전 정부군 처형 항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의 전 정부군 처형 등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톨루뉴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30여 명은 이날 카불 시내의 한 모스크 인근에서 '정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수백m를 행진하다가 탈레반 대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여성들은 탈레반 집권 후 정부군 100여 명이 처형되거나 실종됐다는 최근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와 관련해 항의차 거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전 정부군 장교가 체포된 뒤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은 "탈레반은 학살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석한 나예라 코아히스타니는 "우리는 자유, 정의, 인권을 원한다"고 말했다.
시위 참석자들은 또 여성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탈레반 정부는 지난 26일 "가까운 친척 남성과 동행하지 않은 채 72km 이상을 여행하려는 여성은 차에 태워주면 안 된다"며 여성의 외출과 여행에 대해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지난달 하순에는 여성의 TV 드라마 출연과 해외 드라마 방영 금지 등을 담은 방송 지침이 공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제빙설제 얼음 조형물 준비하는 중국 하얼빈 28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국제 빙설제' 행사장에서 인부들이 개막을 앞두고 얼음 조형물의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인 60.1% “수교국 감소 걱정 안 해” 32.5% “외교적 고립 걱정”

대만인 60.1%가 수교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민의기금회(TPOF)는 전날 '2021년 4개 국민투표 이후 대만 여론의 새로운 추세'에 관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민의기금회가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69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1%는 대만의 수교국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6월 조사(47.6%), 2019년 9월 조사(52.9%)에 이어 이번 조사(60.1%)까지 대만 수교국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교국 감소를 우려하는 비율은 2017년 6월 조사(46.6%) 이후 계속 감소해 이번 조사에서는 32.5%로 조사됐다.
기금회는 대다수의 대만인이 수교국의 감소 추세와 단교의 중복적 발생에 익숙해지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다만 대만인 3분의 1은 여전히 대만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순 중미 국가 나카라과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수교국은 14개로 줄어들었다. 대만의 수교국은 대부분 중남미, 카리브해,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다.
대만은 2016년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중국의 고립화 전략과 전방위 압박으로 인해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등 8개국이 단교를 선언하면서 외교적 입지가 크게 축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러시아 부총리 “유럽으로 가스공급 늘리려면 장기계약 필요”

“유럽 수요 충족돼야 가격 안정”

러시아가 유럽의 수요에 맞춰 가스 증산을 준비 중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장기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현지 RBC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스 생산과 공급을 늘릴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노박 부총리의 발언은 러시아의 공급 축소를 우려를 유럽의 가스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나

은 것이다.
그는 “러시아는 유럽의 수요 전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생산량을 늘리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해 가스프롬(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은 장기 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박 부총리는 “우리는 유럽에 가스 공급을 늘리지 않아 비난받고 있지만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더 많은 공급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 제안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노르트 스트림-2’를 통한 가스 공급이 시작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나 독일과 유럽연합(EU)의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노르트 스트림-2는 발트해의 해저를 가로질러 독일로 연결되는 1230km 길이의 가스관이다. 지난 9월 완공됐지만 독일 당국은 가스관 가동 승인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독일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EU 행정부인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는 “내년 상반기 끝무렵이 ‘데드라인’”이라며 “승인 절차가 빨라지면 훨씬 일찍 공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EU가 노르트 스트림-2 승인과 관련해 추가 요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